

불에 구운 개고기, 然(연)

■ 강상헌의 심우도



언어철학자 · 우리글진출원 고문

‘개고기 식용’ 관련 논란을 생각한다. 얼핏 떠오르는 것이 구라파와 미국, 특히 불란서에서 고급요리로 치는 푸아그라(foie gras)다. 유럽과 유에스에이(U.S.A, 아메리카), 프랑스를 동아시아 방식으로 부른 것은 ‘문화의 차이’를 보이고자 함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의 동아시아의 용(龍)과 동굴 속 공주를 구하는 기사(騎士)의 창에 찔려 피 흘리는 서구(西歐)의 드래곤(dragon)은 전혀 다른 상상의 동물이다. 상당수가 龍의 번역어가 ‘드래곤’이라고 착각하는 마당이다. 개고기 문제의 (문화적) 발생 지점으로 읽는다.

나는 푸아그라를 즐기는 저 사람들을, 속으로는 못마땅하지만, 비난하지 않는다. 현지에서 먹어봤다. 맛있었다. 그 후 먹지 않았다. 그 뜻은 ‘기름진 간’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유서 깊은 요리다. 한국의 일부 식품점, 서양요리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인간이 제 입맛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학대할 수 있는가? 갈땀기를 거위 오리의 목에 넣고 옥수수 같은 곡물을 밀어 넣는다. 간이 0.5~1

kg까지 커지고(붓고) 맛이 좋아진단다. 세계 곳곳에는 공감 못할 음식이 있다. 나는 ‘그것을 먹지 말라!’ 욕박치르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양년의 배우 브리짓트 바르도의 ‘한국의 개고기’ 비난을 접하며 저 황당한 우월감이 실은 일본 중국을 향한 열등의식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바르도의 깃발에 와글거리는 유럽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폭력적 태도, 그들에게 (저를 불) 거울을 쥐여줘야 한다. 스테이크는 왜 먹지?

고대 동아시아, 황하(黃河) 유역에서 문명의 새벽을 짓던 이들은 그림으로 제 뜻을 펼 문자를 만들었다. 한자가 된 갑골문(甲骨文)이

다. 자연(自然) 당연(當然)에서 보는 然은 어떤 그림인가? 고기 육(肉) 개 견(犬) 불 화(火)의 합체다. 동이겨레도 저기서 함께 살았다.

불에 구운 개의 고기가 ‘그러하다’가 됐다. 자연스럽고, 당연한가? 어떤 조화가 이런 인문학적 화학을 빚었지? ‘개불고기는 맛있어, 그렇지’하는 생각이 그런 뜻을 빚었다고 스승인 문자학자 故 진태하 선생은 설명했다. 이어나 이룬 있으면 알려 주시게나.

문화의 존재형태 중 하나가 그림이 바탕(象形 상형)인 표의문자(表意文字)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의 소 사냥 그림도 당시 어떤 뜻(이미지)의 도구였었으나 후세에 전승(傳承)되지는 않았다.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의 상징체계도 중요한 문화도구였다. 그러나 그 생명은 사라졌다.

3500여 년 전부터의 생활의 전통이 의외의 증거에 담겨있었던 것이다. 어제(과거)는 이제(오늘)에 반영된다. 하제(내일)로 전해진다. 우리 중에 바르도는 알면서 황하문명의 문명 담론은 들어본 적 없는 이들도 있다. 이런 이슈 떠오를 때마다 미소 짓는 이유다.

적폐언론의 ‘업보’

■ 최영목의 미디어개기



성공회대 교수

조종동애스와 종편 등 ‘적폐언론’의 무기는 불법, 탈법으로 장악한 기득권과 선택적 ‘담합저널리즘’이다. 이들의 특권을 통한 여론시장 개입과 왜곡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최근 이들 적폐언론의 부당한 기득권과 여론시장에서의 횡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 서울행정법원은 11월 19일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설록 등 ‘독립언론’들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기자단’을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법원은 “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기본권 내지 법률상 이익은 그 소속 기자들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고유의 것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함으로써 배타적 기자단 운영으로 특정 언론기관이 배제될 경우, 그 언론과 관련한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법조기자단 카르텔은 검찰과 언론 유착과 ‘부당거래’의 핵심 고리였다. 감시대상

과 감시자의 담합결과 언론사는 기소되지 않는 특권집단이 되었고 검찰비리는 언론보도의 성역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검찰기자단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34만 3622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한 바 있다.

둘. 경찰은 11월 23일 신문 발행 부수를 조작과 관련하여 조선일보 지국 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2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민·김용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이 ‘부수 조작, 광고비 사기 및 정부보조금 편취’ 혐의로 각각 조선일보를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여 만의 일이다. 어떤 ‘조작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셋. 서울남부지법은 11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권 전 의원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의 거래가 시세 차익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끝까지 판다’며 집요하게 손 전 의원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몰고 갔던 ‘토건방송’ SBS는 2심 결과에 대해 “‘폭포투기 의혹’ 손해권, 2심서도 유죄”라는 제목을 뽑았다. 자신들이 집요하게 문제 삼았던 사건이 무죄로 결론지어졌으면 일단 사과하는 것이 순리다. 수미일관한 왜곡보도로 자신들이 거래가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서울방송(SBS)의 손해권 전 의원 관련 보도는 전형적인 ‘허위조작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언론사와 기자가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박한장’ 분위기다. 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손배제가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 대폭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급하다. 다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이완호흡

■ 아침보약



배은주
경희대강한의원 원장

한의원 대기실이 시끄럽다. 알고 보니 한 환자가 이사회 회의하다 말고 너무 아파왔다고 하며 빨리 치료받고 가야 한다며 간호사를 재촉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난 모양이었다.

처음 내원하면 하는 잠깐의 예진 시간에도 마음이 쫓기는 말쑥한 양복차림의 그는 붉은 얼굴과 크고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급하게 들어온 진료실에서 목이 아파 움직일 수 없는데 중간에 나온 이사회 회의 걱정이 먼저이다.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으로 전체적으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고혈압으로 혈압약도 복용 중이다.

그녀는 프리랜서 작가이다. 마감에 항상 쫓긴다. 예민한 성격인데 완벽하게 일하길 원하고 또 그 시간에 쫓기는 마음이 지속되니 몸이 영향을 받는다. 혼자서 일하다 보니 입맛이 없을 때도 있고 귀찮기도 해서 식사시간이 들쭉날쭉하다. 입맛도 없고 해서 밀가루와 간식 위주의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대충대충 때우기 일쑤다. 언택트 시기에는 더 심해졌다. 이러한 생활이 누적이 되니 소화도 잘 안되고 야간에 잠을 자주 깨고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 불안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잘 놀란다.

한의원에서 만나는 풍경들이다. 바쁜 일상에는 호흡조차 여유롭지 않다. 오징어게임 속의 인간군상이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 경쟁사회에서 다들 고군분투 중이다. 코로나 19로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생활에서 많이들 긴장되고 고립되며 쫓긴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긴장은 몸을 스스로 조율해주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다. 마치 항상 전투 중인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원시시대에 초원에서 맹수에 쫓기고 사냥을 하던 인간은 바쁜 업무와 회의시간에 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감을 쫓는다. 행동은 다르지만 마음이 느끼는 압박이 유사하기에 몸도 같이 반응한다.

지난 칼럼에서 코로 느리게 호흡하는 것

을 호흡의 기술 첫 번째로 요약하였다. 기본이 되는 첫 번째에 더해서 위의 환자들과 같이 긴장이 심한 분들에게 관하는 두 번째의 요약은 긴장 시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쉬는 것이다. 이완을 위한 호흡에서는 폐 전체가 공기를 들이 마시는 용적이 커질 수 있도록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나오고 숨을 내쉴 때 아랫배가 들어가는 호흡을 권한다. 이 호흡 자체는 폐의 아랫부분에 접하고 있는 횡격막의 이완을 유도하여 폐의 부피를 늘린다. 이완을 위한 호흡 연습은 효과적이 만큼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중 쉽고 간단한 것을 하나 안내하겠다. 처음에는 들이쉬면서 천천히 하나 둘 마음속으로 세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을 센다. 조금 더 이완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내쉬는 숨 끝에 나는 편안하다고 말을 하면 더 좋다. 이 호흡은 점진적으로 교감신경항진상태를 완화시켜서 이완을 돕는다. 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음에는 10회 정도만 해볼 것을 권한다.

좋은 호흡을 할 때는 몸이 더 편안해진다. 언제나 내 몸의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의 상황에 따라 연습 횟수를 조정한다.

사설

최하층으로 내몰린 20대, 근본 처방 내나라

연금개혁·노동개혁 등 체질 개선 나서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퉀 청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대는 강력한 유동층이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출 등에서 청년층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의 집토끼가 아님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이념과 기존 세대 개념을 뛰어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2030 세대가 판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세대간 자산 격차’ 보고서를 내놔다. 핵심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년 동안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키며 앞 세대와의 격차를 줄인 세대는 3040이고, 반대로 자산 형성이 가장 늦고 앞 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좁히지 못한 유일한 세대는 2030이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세대구조를 산업화 세대(1940~1954년 출생), 1차 베이비부머(1955~1964), 2차 베이비부머(1965~1974), X세대(1975~1984년 출생), Y세대(1985~1996년) 등 5개로 나눴다. 그런데 Y세대(MZ세대에 해당)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같은 연령대에 바로 앞 세대의 순자산을 넘어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이 어린 세대가 자산 형성에 불리하다는 것은 Y세대에만 해당됐다. 같은 2030 세대(MZ)라 해도 연령대가 낮은 20대(Z세대)로 내려갈수록 자산 형성이 더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20대는 소위 최루탄의 민주화 시대가 아니다. 경제적 이슈, 불공정·비상식에 매우 민감하다. 2030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나왔다.

지난 25일 발표한 통계청의 ‘2019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28세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한 뒤 44세에 흑자(1594만 원)의 정점을 찍고, 60세부터는 근로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 인생’에 접어들었다.

9년 전인 2010년에는 ‘27세 흑자 돌입’ ‘39세 최대 흑자’ ‘56세 적자 시작’이었다. 노년층의 적자 전환 시기는 4년 이상 늦춰진 반면 젊은층의 흑자 전환은 오히려 1년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경제구조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한국 경제의 풍요와 낙수 효과를 누리던 베이비부머나 X세대까지는 노동소득과 이로 인한 자산 축적이 가능했다. 그러다 한국이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세계적인 저고용 기조까지 이어지자 특히 Y 또는 Z세대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산 형성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양상이 세대간 양극화로 직결되고 있다. 이대로 두면 부모로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20대가 최하위 세대·계층으로 추락한다. 그리고 이들이 30대, 40대로 넘어가면 한국의 인구구조·경제는 회복불능이 되는 답답한 현실이다.

정부나 대선 후보들에게는 사회 첫 진입하는 세대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의 지상명령이다. 20대가 첫 단추를 제대로 꿰매느냐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 조현정의 오늘의 성찰

생명이란?

생명은 죽음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꿀 뿐이다.

하루의 고뇌는 그날 하루로 족하다. 자신의 삶을 의욕과 공포 속에서 낭비하지 말라. 현재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몇 시간 또는 몇 세기를 위한 최선의 준비임을 믿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종사하라.

인간이 살고 있는 집은 부서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영혼이 자신을 위해 깨끗한 사상과 선한 행위로 지은 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그런 집에 사는 자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류시 말로리)

내세를 믿을 수는 없지만, 현재의 삶이 불멸이라는 것은 믿어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똑똑히 확인할 수도 있다.

불멸에 대한 신앙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의해 주어진다.

죽음에 직면하여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진실성의 지표이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의 자유, 평화, 영혼의 힘에 의한 의식, 그리고 삶의 기쁨은 더욱 커진다.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현재의 삶과 진실하고 무한한 삶의 동일성을 완전히 의식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것에도 파괴되지 않는 평화가 있다.

인격은 생명진화의 가장 높은 맨 끝이지만,



목사·예수살기 대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생명의 아주 낮은 원시적인 밑의 단계에서도, 자유의 원리에 따라서 저항의 원리는 살림을 지배하고 있다. 유기체라 부르지만 그 기(機)라는 것이 무엇인가?

벌써 그것이 자성적인 것

아닌가? 생명이 어쩌서 무생물에서 나왔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고, 그저 생명 자체가 자기 설명을 할 뿐이다.

생명은 곧 자기주장이다. 진화론에서는 무생물, 시생대를 갈라 말해서 지구 위에 생명없는 시대가 오래 계속되다가 어느 때에 가서 비로소 생명의 탄생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물론 분명히 알 수 없으나, 하여간 그런 어떤 순간을 생각하여보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 가령 단 하나의 현미경적인 단세포가 막대한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 처음으로 켜켜한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 오던 무생물의 우주 전체에 대해 큰일 아닌가? 그 자연력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그 지극히 미미한 하나의 생기는 굉장한 맞섬이요 뻘뻘이요 걸려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함석헌)

주요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경기신문

2002년 6월 15일 창간
www.kgnews.co.kr

문화 가-00224(일간)

ISSN 2635-978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 는 설 주 간	김 세 환 심 흥 식	인 쇄 인 편 집 국 장	박 장 희 김 대 훈	인 천 본 사 사 장 인 천 본 사 편 집 국 장	이 한 성 이 인 수
-------------------	----------------	------------------	----------------	--------------------------------	----------------

본사 : ☎16949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대표전화 : 031-268-8114

수원본사 : ☎16702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대표전화 : 031-268-9645

인천본사 : ☎215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대표전화 : 032-442-8114

광고문의 : 전화 031-268-8330 팩스 031-268-8333

구독신청 : 전화 031-268-8335

구독료 : 월 12,000원 · 1부 : 600원

독자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31-267-4459 / 팩스 031-268-8393 / e-mail opinion@kgnews.co.kr

※ 외부 기고는 경기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